



3면

내년 국가예산 한푼이라도 더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음 10월 15일) 제3625호

대표전화 (063)288-9700

‘글로벌 경제중심 새만금’

새만금청,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기본방향 발표

첨단전략산업 등 3대 허브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 제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4월부터 새만금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번 보고회는 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사회의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 3대 허브와 이번 기본계획에 새로 도입되는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을 제시했다.

첨단전략산업 허브는 우선 이차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밀화학 업종이 집중화되고 있는 현재의 수요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새만금을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산업 및 농산업 등이 융복합된 산업용지(이하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투자와 인구유입의 기반을 구축해 도시를 조기에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글로벌 푸드 허브는 새만금이 수출형 식품산업 특히,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농식품의 생산·공급·가공 식품의 생산과 공급기지로 유리한 입지임을 분명하다. 식품산업의 거점으로서 가진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농식품산업 혁신과 협업 생태계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

특히, 새만금은 신항만과 전북의 농생명·바이오산업 그리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권역(관광·레저용지)은 다른 용지와 달리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2035년 이후) 도시 및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국제공항, 크루즈선 입항 등 여건이 갖춰지면 관광·MICE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가시티 전략으로는 인구 유발 기능(시설)을 인접 지역으로 충분히 배분하여 지역과 동반 성장, 상생 발전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재수립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초광역 또는 광역적 연대와 협력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고 있어, 기존 도시에서 인구를 끌어들이는 ‘빨대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일지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주변 지역에 배치하는 등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한 3대 허브, 메가시티 경제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에는 총 44km²(약 1,300만 평)의 산업용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현재 개발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계획면적의 4.5배의 면적이다.

당장 개발에 착수해도 토지가 공급되는 데까지는 최소 4~5년 이상이 걸리므로 부족한 물량 중 당장 조치가 시급한 2031~2035년 수요(약 7.5km²)만이라도 우선 반영하지는 것이다.

아울러 새만금 전체의 도시 공간구조도 새롭게 제안했다.

새만금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동서·남북 3x3도로 중 공항·항만·도로·철도 인프라가 집중된, 새만금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수변공간인 남북 2축의 좌측(서측)은 도시·산업·관광 경제 특구로 만들고, 남북 3축의 우측은 군산·부안·김제 등 주변 도시와 고속도로 접근성 등을 살려 제조산업 중심의 메가시티 연계권역으로 개발하면 주변 중심지와 접근성이 좋아 기존 도시의 정주여건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주변 도시와 동반 성장에 매우 유

리하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변 원도심 쇠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용지 확대에 늘어나는 유발인구를 새만금 내부가 아니라 주변 도시로 안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와 일지리를 만들어 내는 산업용지와 관광레저용지를 우선 개발하고 대규모 주거용지 개발은 가급적 후순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농생명용지에 이미 설치된 농로와 농수로 비용이 매몰된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매몰 또는 손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공항, 항만, 철도,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기업투자를 위한 것이다”라면서, “지금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해야만 새만금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주무 부처로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열린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제 용지 현업축사매입 ‘송동’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14일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이원택 의원의 발의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규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29일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한편,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김제 용지 축사 매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즐거분한 마음으로 인증사진 ‘찰칵’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전주시 전북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 하고 있다.

2025학년도 수능 마무리

수험생들 “6·9월 모의고사와 비슷”
부정행위 4건 적발·시험 포기 사례도

전북지역에서 1만7,000여명이 응시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수험생들은 이번 수능 난이도에 대해 6월, 9월 모의고사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적정 난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고, EBS 영역별 연계율은 50% 수준으로 맞췄다고 밝혔다.

일부 과목, 일부 영역에서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전북지역 수능 결시율은 전년보다 낮게 집계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1교시 국어영역 결시율은 10.33%로 지난해보다 0.18%p 낮게 나타났다. 2교시 인 수학영역 결시율은 9.83%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0.49%p 낮게 나타난 수치이다. 3교시 영어영역 결시율은 10.59%로 지난해 결시율 11.10%보다 0.51%p 낮게 나타났다.

이번 수능과 관련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종료령 이후 답안지 작성과 중도 포기 사례 등이 발생했지만, 대체로 무난히 치러졌다.

먼저, 군산A고등학교 C학생이 수능 전날인 지난 13일 하교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해, 해당 학생이 학교에 대해

방안을 문의했다.

이에 교육청에서 학생 시험장인 군산B고 보건실에서 시험지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다행히, C 학생은 안정적인 시험을 치렀다.

이번 전북지역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4건이 적발됐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 한 수험생이 1교시 시험종료 이후 답안지를 작성했다. 답안지 마킹을 하지 못한 해당 수험생은 시험 종료 뒤 급히 마킹을 했지만 감독관에게 적발돼 퇴실 조치됐다.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 이날 3교시 영어영역시간이 끝난 뒤 휴대폰을 소지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다른 수험생이 이를 목격, 교육당국에 신고했다.

교육당국은 휴대폰 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수험생에 대해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또 전주에서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1, 2선택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놓은 수험생과 탐구 2선택 시간에 1선택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 등이 적발돼 모두 부정행위로 수능 무효 처리됐다.

봄에 이상이 있던 수험생들이 수능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전주의 A학교에서 수험생 B양이 과호흡 증상을 보였다.

또 잠시 뒤 같은 시험장에서 10시21분께에도 C양도 과호흡 증상을 호소했다.

B양과 C양은 모두 시험을 중도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10시 23분경에는 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르고 있던 D(18)양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교육당국은 이들에 대해 모두 중도포기 처리했다.

이의 특이사항도 있었다.

정읍시험지구 한 교사장에서 4교시 1선택 과목 종료 5분전을 안내하는 멘트가 오후 4시에 방송돼야하는데 10분 전인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되는 방송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으나, 안내 방송 이후 실수를 인지하고, 바로 정정하며 시험종료 시간 1분 연장을 안내했다.

한편, 수능 문제와 정답 이의 신청은 오는 18일까지고, 수능 성적 발표는 내달 6일이다. /정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주매일 캠페인